

전북도청 “도민에 열린 청사” 문턱 낮춘다

민선9기 ‘청사 전면 개방’ 추진 평일 근무시간 자유 출입 허용 출입증 발급 절차 대폭 간소화 훈령 개정 후 본격 시행

민선 9기 전북도가 도민 참여 확대와 열린 청사 운영을 위해 도청 문턱을 낮춘다. 도는 이원택 도지사가 간부 회의에서 도민 편의 증진과 열린 도청 구현을 위해 도청 청사를 전면 개방하라고 지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도청사에 도민이 출입하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청사가 다소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도민 주권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도청사부터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자유롭게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청사를 개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즉시 청사 출입 관리 조항이 담긴 훈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훈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 달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부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훈령에는 외부인이 청사를 출입할 때 방문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시·보관, 방문 목적 확인 후 방문증 발급 등의 절차가 규정돼 있으며, 방문을 마친 방문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전 협의된 주요 인사나 단체방문자는 발급이 생략된다.

도는 훈령 개정과 함께 보안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한다. 그동안 신분증 확인과 방문증 발급 등을 담당해 온 청원경찰의 역할은 시설 안내 중심으로 전환하되, 주요 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청사 개방은 도민을 도청의 중심에 두겠다는 민선 9기 전북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으로, 도청이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도민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신청 접수 연장

내달 24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ha당 최대 150만원 지원 생산장려금·공공비축미 혜택

전북도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신청 기간이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24일까지 연장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

부가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간을 전국적으로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7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농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전략작물직불제에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전북도는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원에 더해 자체 인센티브

도 마련했다. 기존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수급조절용 벼를 포함해 ha당 50만 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2026년 공공비축미 매입 시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92포대(40kg 기준)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물량은 약 100만 원 상당으로, 생산장려금을 포함하면 참여 농가는 ha당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지원 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시·군과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

과 협력해 신청 마감일인 7월 24일까지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선9기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함께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신청 기간 연장과 추가 인센티브가 마련된 만큼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완진무 국가예산 확보 ‘머리 맞대’

예산정책협의회 순회 개최 군정·의회·국회 협력 강화



안호영 의원

지역 성장 기반과 활력 제고 방안이 논의된다. 무주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무주군 특화 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부터 9일까지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을 차례로 방문해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완진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민선9기 출범 이후 각 군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예산 사업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안 의원은 “완주·진안·무주는 각각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민선9기의 성과는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 그리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협의회는 7일 완주군청을 시작으로 8일 진안군청, 9일 무주군청에서 각각 열리며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군의장과 군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각 군의 군수와 부군수, 국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피크릴 AI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추진 등 미래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 사업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진안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및 전북 도민체전 준비 등

공유주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무주~대구 고속도로 및 전주~김천 철도 등 미래 먹거리와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안 의원은 “완주·진안·무주는 각각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민선9기의 성과는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 그리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며 “각 군의 핵심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이 중앙부처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발전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군정과 의회, 국회가 자주 만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완주·진안·무주의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예산정책협의회 이후에도 논의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협의, 국회 예산 심의 대응, 관계기관 협력 등을 이어갈 계획이 문외 해 및 전북 도민체전 준비 등 /서울=김영목기자

<■ 본사 내방>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희수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병도 / 박정규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 진형석

-2026년 7월 6일-

레디 제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인 만큼, 아동용 확대한 가해자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제도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는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 역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 접수

지역발전 공로 5분야 수상자 선정 단체 대상 특별공로상 신설

전북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전북 발전과 도민 화합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시상하는 상으로 지금까지 총 178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북을 대표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는 기존 혁신·경제·문화·나눔 등 4개 부문에 더해 지역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기관·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로상’을 신설해 총 5개 부문에서 시상한다.

시상 부문은 ▲혁신 ▲경제 ▲문화 ▲나눔 ▲특별공로 등 5개 분야다. 혁신 분야는 과학기술과 삶의 질 향상, 경제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 문화 분야는 교육·문화예술·체육 발전, 나눔 분야는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공로상은 해당 연도(2026년) 지역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에 수여한다.

수상 자격은 공고일인 7월 6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전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공적이 있는 경우이며, 특별공로상은 기관·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는 도내 기관·단체·기업체의 장 또는 전북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추천할 수 있으며, 본인 추천은 할 수 없다.

추천서는 8월 28일 오후 6시까지 전북도 자치행정과 또는 시·군 자치행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된다.

도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46회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특별공로상을 신설해 기관과 단체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도민과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아동학대 가해자 연금 혜택 제한해야”

‘출산크레딧 제한법’ 대표 발의 학대범 연금 가입기간 산입 제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제한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산크레딧의 수혜 범위에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학대자라 할지라도 단지 출산·입양을 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윤준병 의원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방임, 심지어 치사에 이르게 하는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무분별한 지원은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훼손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가해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산크

"함께 지켜요" 교통 안전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제로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수칙 준수

보행자·운전자 언제나 바깥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모두를 위한 행복한 엄출 '운전 졸업'

고령자 운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춰주세요!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전주시 가짜 분양권 사기 발생

위조 계약서·신분증 이용 증가 거래 전 권리관계 확인 당부

최근 전주시에 위조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이용한 분양권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를 속인 뒤 가계 약금만 가로챈 '가짜 분양권 사기'가 발생했다. 주요 범행 수법은 실제 분양권 매수 희망자를 가장해 공인중개사 등으로부

터 분양계약서 사본을 확보한 후 계약자 명의와 신분증 등을 위조해 실제 분양권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을 통한 사기방식이다. 이어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권 매물을 내놓은 뒤 매수 희망자를 유인해 분양권 선점 위한 가계약금 명목 금전을 송금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분양권 거래는 일반 부동산 거

래와 달리 해당 세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분양권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시행사가 보유한 공급계약서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 외에는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동일 명의의 계좌까지 제시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물론 공인중개사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분양권 매물은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시행사 등을 통해 실제 당첨 여부와 권리관계를 가늠한 범위 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래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의심되거나 사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맛배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서비스 오픈!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온라인 판로 확대 배달시장 진출 지원 도모

전주시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 이용 시민에 대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서비스가 오픈됐다. 앞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

제 시스템을 전주맛배달에 연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른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전주맛배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앞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은 전주맛배달을 새로운 판매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온누리상품권 이용 고객 신규 유입을 통해 매출 증대와 고객층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진흥원은 이번 결제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정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맛배달 이용 시민들 또한 기존 신

용카드와 간편결제 이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배달·포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결제 수단 선택 폭과 전주맛배달 이용 편의성도 높아지게 됐다. 이와 함께 전주맛배달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 2만 원 이상 주문한 이용자에게 선착순으로 5000원 할인쿠폰도 진행한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측량업체 ‘지도·점검’ 실시

‘등록불법대여·등록기준미달’ 위법행위 근절

전주시가 오는 10월 30일까지 47개 측량업체 대상 '2026년도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측량업체 지도·점검은 △부실 측량 예방 △시민 재산권 보호 등에 따른 이유로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측량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적 등록기준(기

술인력 및 측량장비)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증 및 장비 불법 대여 행위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신고 이행 여부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우선 각 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표를 송부해 1차 서면 점검을 진행한 뒤 서류 미제출 업체나 부실 징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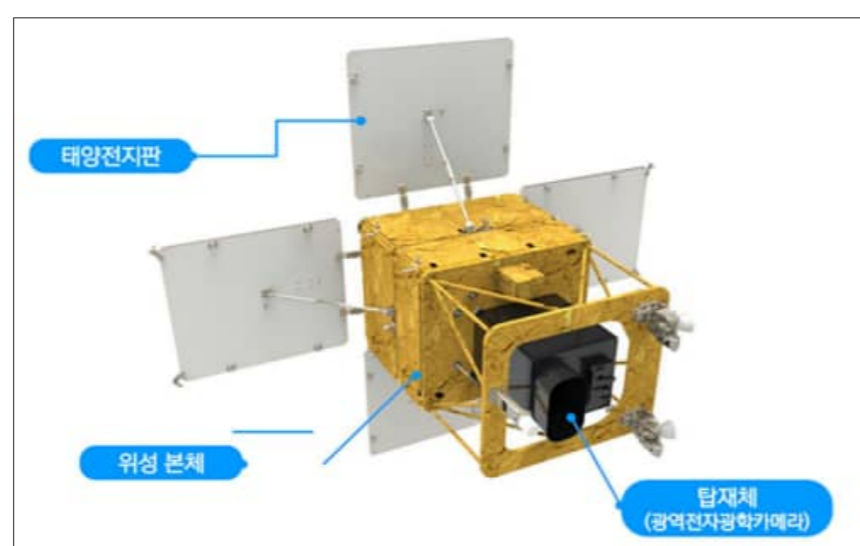
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등록기준 미달과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과학농정 전환 추진

차세대중형위성 4호 '농림위성'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고도화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차세대 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 발사에 따른 농정 전반 위성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했다. '농림위성'은 한국시간 7월 7일 16시 10분(현지시간 7월 7일(화) 00시 10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SPACE-X)사의 '팔콘 9(Falcon-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농림위성은 한국 최초 '독자 농림특화 위성'으로 해외 위성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공 관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 농림위성은 해상도 5m, 관측폭 120km, 3일 주기로 한반도 전역을 정기적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농작물 및 산림자원 생육 관별에 유리한 5개 분광 밴드를 탑재해 국내 농림업 구조에 적합한 정밀 관측 기반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농산물 수급 조절, 농업재해 대응, 농업용수·기반시설 관리,

산림 재난 및 생육 모니터링 등 핵심 정책 수요에 대응한다. 전국 농경지의 특성이 반영된 위성영상에 주요 작물정보와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한국형 농업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신임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 “누구나 평등한 전북 실현” 최선

전북소방본부 신임 진형민 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 후 “도민 안전 최우선” 중심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관련해 진 본부장은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를 방문해 폭염과 풍수해 대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행사를 대신한 것으로 진 본부장의 누구나 평등하게 보호받는 전북을 실현으로한 그간의 결정으로

의미가 남다르기도 하다. 진 본부장은 먼저 형식적인 취임 절차보다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대응현장을 먼저 살피겠다는 의지를 토로했다. 나아가 진 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민선 9기 도정 현장 실천방향에 발을 맞췄다. 진 본부장은 이날 특수구조대의 여름

철 재난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수난구조 장비와 특수구조차량 등 주요 장비의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출동태세와 현장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에 따른 진 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2026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가 보건복지부 주관한 '2026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전공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도전문의 교육 역량을 강화

해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전북대병원은 인턴을 비롯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총 8개 진료과가 참여하며, 우수한 수련 성과와 교육 체계를

인정받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공의 중심의 교육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운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

/정혜민 기자

전주시의회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는다” 새 슬로건으로 의정활동 돌입

전주시의회 제13대 의원들이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 슬로건과 함께 공식 의정 활동에 들어섰다. 6일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는다” 뜻으로 새 슬로건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시의회 제13대 의원들은 6일 오전 전주군경묘지를 찾아 순국선열 송고한 넋을 참배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제13대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주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교육지원청 △경찰관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해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를 강조한 최주만 의장은 “새 슬로건과 함께 전주시의회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한옥마을 주변 주취 폭력행위 등 특별단속

‘풍남문 광장·경기전광장·청연루’ 음주소란·시비·폭력 단속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풍남문 광장 등 전주 한옥마을 일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습적인 주취 폭력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옥마을 주변 △풍남문광장 △경기전광장 △청연루 일대 등 △주취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사범 등이다. 특히 특별단속은 전주 지역 주요 관광지 △상습적인 노상음주 △고성방가 △취객간 폭행·시비 등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안감 조성에 의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한다. 이에 전북경찰은 최근 실제로 주취 폭력행위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구속 사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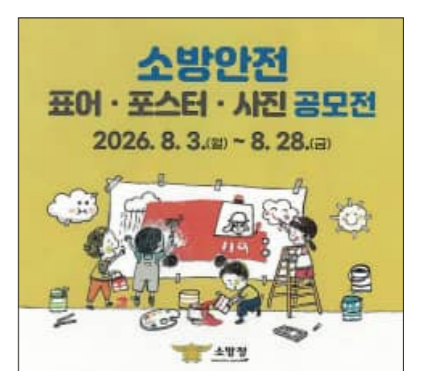
(특수상해) '2026. 7.경 '술을 주지 말라'는 말에 화가나 술병으로 상해(구속)
(특수협박) '2025. 10.경 '매일 술마시냐'는 말에 화가나 커터칼로 협박(구속)
(공무집행방해) '2026. 4.경 폭행 사건 처리 중 신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구속)
전북경찰은 주취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신고이력·범죄경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습적 주취 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북경찰은 이 지역들에 대해 가용경력을 동원해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한옥마을 주변 지역 급주구역 지장'을 위해 전주시 등 자치단체와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2026년 소방안전 공모전' 홍보

포스터·사진 등 3개 분야 국민 누구나 참여 8월 3일부터 접수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가 '2026년 소방안전 포스터·사진 공모전'을 적극 홍보했다. 공모전은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화재 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방청이 주최한다. 공모전은 불조심과 생활안전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캘리그래피) △포스터(묘형포스터 포함) △사진 등 3개 분야이며, 분야별 1인 1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작품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화재예방과 생활안전 전반에 대한 예방 및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된다. 특히 사진 분야는 공모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직접 촬영한 사진만 출품 가



능하며, 포스터와 사진 분야 역시 수 창작물만 인정된다. 수상작은 오는 9월 심사를 거쳐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방청장상 등 총 47점의 작품을 선정해 총 1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소방정책 홍보자료와 안전문화 캠페인,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전국 소방관서 전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주덕진소방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TP 순창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팔도밥상페어’서 K-푸드 공략 지역 식품 수도권 소비에 직접 참여

전북TP가 전북 순창 농생명식품산업 생태계 구축 위한 국내 수도권 시장을 공략한다. 전북TP는 이를 위해 ‘시군구 연구산

업육성사업’ 일환 ‘2026 수원 팔도밥상페어’에 순창군 지역 우수 식품기업 6개사와 함께 참여했다. ‘2026 수원 팔도밥상페어’는 전국 각지 우수 농수산물과 지역 특산 가공식품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는 대규모 오프라인 직거래 판매전이 다. 아울러 ‘팔도밥상페어’는 지역 특산품 수도권 판로 개척과 B2B(기업 간 거래)·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

동시 공략에 최적화된 마케팅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팔도밥상페어’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광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규모 박람회에서는 전북TP·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가 순창군 소재 우수 식품기업 6개사 등의 수도권 시장 공략 공동 지원을 펼쳤다. 올해 지원을 받아 참가하는 수혜기업은 △이조전통식품 △비블 △주식회사

희나리 △주식회사 맑은상화에프앤비 △명지명가 △지티지푸드 등 총 6개사로 양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품 홍보와 판촉에 돌입한다. 전북TP·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이번 박람회 현장에서 수집된 소비자 피드백과 바이어 상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참여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화 지원 및 연계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스쿨팜 식(食)체험”

텃밭 채소 활용한 음식만들기 지역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체험에서 큰 관심과 호응을 보인 아이들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버거를 만들면서 농업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 및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매일 바라보고 가꾸었던 텃밭에서 상추가 크고 오이가 자라는게 마냥 신기했는데 요리를 해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먹어 더 맛있고 좋았다”고 말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주변에 있는 우리 농산물을 아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돼 기쁘다”며 “직접 요리하고 맛보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작물의 특성과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통해 농심(農心)의 가치가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진원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운영

상반기 총 280건 진행 경영 애로 해결사 특목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분기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경

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고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상반기(1~2분기)에만 이미 총 280건의 컨설팅을 성황리에 진행하며 도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진흥원 측은 이러한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이번 3분기(7월 6일부터 접수 시작) 예산 역시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분야는 기업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총 1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전략 △인사·노무 △세무·회계 △판로·수출 △마케팅 △기술지원 등이다. 특히 기업별 애로사항에 맞춰 전문 컨설턴트를 1:1로 매칭함으로써, 단순 상담을 넘어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

원시스템(jbok.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 윤여봉 원장은 “상반기 동안 많은 기업이 컨설팅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3분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지체 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케이(K)-낙농기술 우즈베키스탄 수출 기반 넓힌다!”

한국수정란 이식수태율 50%...우유 생산량도 증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케이(K)-농업기술 해외 진출 모델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실증한 한국형 낙농 기술 성과를 확인하며 국내 기업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에 조성된 케이(K)-농업기술 실증단지(기반)로 한국형 낙농기술과 관련 제품을 현지 여건에 맞게 적용·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농촌진흥청은 인구 증가와 식량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축산 생산성 향상 수요가 큰 우즈베키스탄 상황을 반영해 2025년 현지에서 한국형 낙농기술 실증을 추진했다. 수정란, 동물의약품, 사료첨가제 등 총 10종의 제품을 실증한 결과, 우유 생산성과 번식 효율 개선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실험군의 하루 평균 우유 생산량은 대조군보다 약 2.4kg 많았다. 한국 수정란을 이식한 개체 수태율은 통상적인 수입 수정란 수태율(30%)보다 높은 50%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 국내 수출기업들이 참여해 제품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 실증제품 4종이 우즈베키스탄 인허

가 등록을 마쳤으며 이 중 2종은 총 8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맺었다. 농촌진흥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확인한 실증-수출 연계 모델을 다른 나라로 확대해 2026년에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에서 국가별 여건에 맞게 실증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에는 고능력 우질병 관리 중심의 생산성 향상 묶음 기술(뱀키지), 말레이시아에는 열 스트레스 저감과 위생·질병 관리 중심의 우유 생산성 향상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가축 유전능력 개량을 위한 기초·기반 기술 묶음 기술(뱀키지)을 투입한다. /정소민 기자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와 현지 구매사(바이어)를 한국에 초청해 수정란 및 동물의약품 기업 방문을 주선, 한국 낙농 기자재 관련 산업의 수출 기반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최광호 기술협력과장은 “우즈베키스탄 실증은 한국형 낙농 기술이 현지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내 관련 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우즈베키스탄 실증 성과를 국내 기업의 추가 수출과 향후 다른 국가에서의 실증 확대에 연결해 케이(K)-낙농기술 해외 확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제22회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대회 성황

약 155개 클럽 참가 스포츠를 더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전북은행 소속 배드민턴 국가대표 공희용 선수가 참석해 팬 사인회를 진행하며 참가 선수와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전북은행 송백영과 SNS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물론 지역사회 화합에도 기여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과 문화·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세종대와 ‘노후준비 전문가 양성’ 협력

상담사 자격 취득 지원 정규강좌 개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3일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원장 조원경)과 노후준비서비스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와 노후준비 교육을 제공하고,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과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은 공공정책대학원 시나리오학과과생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상담사(CSA)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을 지원하고, ‘노후준비의 이

해’ 정규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정규강좌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4대 영역과 상담 프로세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연금 소속 노후준비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 또 두 기관은 노후준비서비스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홍보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준비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일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과 노후준비서비스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무주무풍우체국 ‘원스톱 서비스’ 시작

행정·우편·금융 한 곳에서 스텝의 다양한 공공사업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본준 전북지방우정청장은 “무풍면 행정복지센터 내 의용소방대 유휴공간을 우체국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6월부터 무풍우체국이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체국을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로 옮겨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였고, 행정업무와 우편·금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 공으로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번 무풍우체국 이전은 지방정부 공공의 사례를 국민이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 지방정부와 협업한 소중한 결과물로, 이는 무주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우체국이 우편·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랑방이자 복지 전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행정서비스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날로, 무주군에서 전국 최초 지방정부 공간 공동이용 1호라는 결실을 보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새롭게 단장된 우체국이 무풍면민들에게 언제나 반가운 소식과 따뜻한 정을 전해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화답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이번 무주군 사례를 시작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기관 간 인·안부살림 소포우편서비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독거노인 반려식물 보급사업, 마을회관 거점 우리동네 소포서비스 /정소민 기자

신협제주연수원 ‘APAFE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술·교육 교류’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신협중앙회는 신협제주연수원에서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한국금융공학회(KAFE) 주관 ‘2026 APAFE(Asia-Pacific Association of Financial Engineering)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제학술대회에는 국내외 금융공학 연구자와 금융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디지털금융,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연금 및 투자전략 등 금융산업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최신 연구 동향과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이번 학술회에서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공학의 역할을 모색하고, 학계와 산업계 간 지식 교류를 통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공학

분야의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협제주연수원은 95개 객실과 다목적홀, 세미나실,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신협의 대표 교육·연수시설이다. 제주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단체의 교육, 연수, 학술행사를 유치하며 신협의 교육 기능과 대외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신협제주연수원의 시설 경쟁력과 행사 운영 역

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협제주연수원이 단순한 내부 교육시설을 넘어 국내외 학술·교육 교류가 이뤄지는 개방형 연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협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금융공학회와의 교류 기반을 넓히고, 상호금융산업 발전과 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학술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확화이다. /정소민 기자

<아시아태평양 금융 공학 협회>

전북교육청, 대입 치명타 막는 '관계 조정' 확대

3~5월 학폭 심의 급감 징계 대신 화해 유도 대입 피해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 심의를 줄이고, 대화와 화해를 통한 '관계 조정'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갈등이 기계적인 징계로 이어져 학생의 장래를 가로막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5월 기준 도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78건으로 전년 동기(207건) 대비 14% 감소한 반면, 교육청이 개입해 화해를 돕는 '관계조정 지원'은 41건에서 128건으로 무려 212% 급증했다. 이를 2024년(심의 255건·관계조정 9건) 통계와 비교하면 심의는 30%가량 확연히 줄고 관계조정은 14배 이상 폭증한 수치로, 신고 건수 자체도 지난해 775건에서 올해 716건으로 줄어들며 징계 대신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 추세다.

과거 전북 지역은 경미한 사안조차 대화보다는 곧바로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에 관련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올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 범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기계적인 징계가 학생들의 장래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실제 전북대의 경우 학폭 조치 1~3호에 5점, 4~5호 10점, 8~9호 50점의 감점을 부여하며, 원광대와 전주대 역시 서류평가 총점에서 강력한 감점 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경미한 학교폭력

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울 수 없는 감점 요인을 남기는 대신 관계조정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학생 간의 근본적인 화해와 갈등 봉합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학폭 처분 결과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직결되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 동점자가 많아져 단 한 번의 학폭 기록이 입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한중문화협회>

전주스포츠클럽, 전북태권도대회 메달 수확

단체전 종합 1위 영예 전주스포츠클럽 문지담, 신예진은 전주여상에 재학 중이며 청소년국가대표로 선발된 전북의 태권도 유망주이며 전북태권도를 빛낼 차세대 태권도 선수들이다. △이번 대회 여고부 우승자 (-46kg 최정인 1위(전주여상1) -62kg 문지담 1위(전주여상1) -67kg 신예진 1위(전주여상1)) △남중부 우승자 (45kg 임창현 1위(효문중) 73kg 차성환 1위(서전중중) 77kg 오건우 1위(효문중) △개인 우수상 여초 고학년 전주스포츠클럽 차승현 (삼천초등학교6학년) 최우수상 수상 △지도자상 전주스포츠클럽 남중부 지도자상 국현진 코치, 여고부 지도자상 문형호 코치가 각각 수상했다. /장정철 기자

군산시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 영화제 공모

지역 매력 재조명 8일~내달 7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지역의 매력을 영상 콘텐츠로 재조명하기 위해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랜 시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사랑받아 온 군산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낸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군산의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영상'이다. 참가자는 군산의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배경으로 한 1~3분 분량의 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해



<사진=군산시>

응모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최근 영상 제작 환

경과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해 일반 부문과 AI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일반 부문은 참가자가 직접 촬영·편집한 영상을, AI 부문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상의 주요 시각·청각 요소를 제작한 영상을 대상으로 하며, 두 부문은 각각 별도로 심사한다. 참가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8일부터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다. 참가자는 구글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작품성, 기술성, 주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4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400만 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과 트로피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8월 29일 개최되는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에서 진행된다. 수상작은 향후 군산시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 관광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익숙한 군산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성이 담긴 많은 작품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공모문을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남원 전국실업볼링대회' 개최

14일까지 전국 실업팀集结 국내 실업볼링 최강자를 가리는 '2026 남원 전국실업볼링연맹 전국실업볼링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8일간 남원시 스포츠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남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실업볼링연맹과 남원시볼링협회가 주관하며,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볼링을 대표하는 전국 25개 남녀 실업팀 총 28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최고 수준의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는 7일과 8일 연습경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일부터 12일까지는 남녀 개인전과 2인조, 3인조, 5인조 경기가 각각 치러지며, 13일과 14일에는

남녀 5인조 결승전과 개인종합 상위 12명이 격돌하는 마스터즈(개인전) 결승 토너먼트가 펼쳐진다. 특히 13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지는 5인조 및 마스터즈 결승 경기는 SBS SPORTS-TV 채널을 통해 오후 1시부터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람해 스포츠의 재미와 감동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실업볼링연맹과 남원시볼링협회가 주관하며,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볼링을 대표하는 전국 25개 남녀 실업팀 총 28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최고 수준의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익산시청서 즐기는 인문학 운영






역사·문학 강연 잇따라 익산시가 무더운 여름 시민들에게 인문학이 주는 위로와 휴식을 선물한다. 익산시는 8일과 15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꽃다운 익산시민+플러스대학' 제4강과 제5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역사와 문학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KBS '역사저널 그날', JTBC '차이나는 클라스', TBN 전북교통방송 '시를 띄우다'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온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와 시인 김정배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오는 8일에는 이익주 교수가 '단종애

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삶과 충신들의 절의·희생을 통해 권력과 인간, 역사와 기억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15일에는 김정배 교수가 'AI시대,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의 감수성과 공감 능력, 상상력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시 읽기를 통해 삶의 깊이를 넓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꽃다운 익산시민+대학'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클래식 음악 활성화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2026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주아트살롱이 이달 '온고을 피아노의 사생활 Interplay' 시리즈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획된 '온고을 피아노의 사생활 Interplay'는 피아노를 중심으로 성악, 시, 실내악, 창작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연결하는 공연 시리즈이며, 지역 클래식 음악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2일 오후 7시에는 'Interplay 2 - 목관과의 Dialogue' 공연이 열렸다. 공연에서는 클라리네티스트 김민호, 한소희, 한아름과 첼리스트 소중연, 피아니스트 배진실, 백정미, 오정선이 함께 무대에 올라 피아노와 목관, 현악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실내악의 매력을 선보였다. 이어 오는 11일 오후 4시에는 'Interplay 3 - 고백' 공연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한울 피아노, 트리오(바이올린 한규현, 첼로 김성민, 피아노 오정선)가 출연해 인간의 삶과 상실, 희망, 극복의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쇼스타코비치, 생상, 하이든, 피아졸라, 윤지원 등의 작품을 통해 삶의 다양한 감정을 서사적으로 표현하며, 음악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소공연장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아트살롱은 지역 연주자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경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장마철 "안전수칙"

- 1 주변 하수구와 배수구 확인하기 
- 2 감전사고 위험있는 전기 제품 코드빼기 
- 3 일기예보 및 호우상황 미리 알아 두기 
- 4 누전차단기 확인하기 
- 5 산과 계곡 조심하기 

정읍시, 공정한 상거래 위해 13일부터 계량기 정기 검사

정읍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다만 최근 2년(2025-2026년) 안에 검정을 마쳤거나 판매용 저울, 가정용 체중계 등 상거래와 무관한 기기는 대상에서 빠진다.

검사는 해당 기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정 장소에서 이뤄진다. 무거운 저울을 옮기기 어렵거나 기기가 한곳에 밀집해 현장 방문을 원할 때는 별도로 '소재 장소 정기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낸 영업점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기기 구조 불량과 무게 오차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기준을 통과한 저울에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붙여주고,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즉시 사용을 막고 수리 후 재검사를 받게 조치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쓰다가 적발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행정 경험으로 진로 찾는다 익산시 대학생 인턴 시작

익산시가 대학생들에게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6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2026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여름방학 행정인턴 사업에는 총 620여 명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150명이 최종 선발됐다. 참여 학생들은 시청 각 부서와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배치돼 오는 31일까지 4주간 다양한 행정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최정호 익산시장의 참석해 행정인턴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이어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근무요령, 친절 교육 등 기본교육이 진행돼 참여자들이 현장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정인턴 사업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대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방학 기간 시청과 공공·유기기관의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업인 폭염 피해 예방요원 18명 현장 투입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고령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온열질환 예방요원 18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농업 분야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층인 만큼, 마을 단위 현장 밀착 안전 관리로 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생활개선회 소속 등 선도 농업인을 예방요원으로 선발했다. 인원은 15개 읍·면에 각 1명, 동 지역에 3명을 배정해 총 18명으로 꾸렸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사전 교육을 마쳤으며, 농촌 마을을 직접 방문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요원들은 고령 농업인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농작업 안전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작업 시간 조정을 권고하는 등 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예방요원 활동으로 단 한 명의 농업인도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재건축·재개발 심의 한번에”

건축·교통·교육 등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 심의 기간 대폭 단축 기대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에 나섰다.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사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해제영향평가, 소방성능유지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그간 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

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운영으로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중앙동2구역, 원도심 재도약

2029년까지 264억 투입 도시재생 사업 추진

군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에서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역특화형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한 지역을 철거 중심이 아닌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형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군산시는 중앙동 주민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인 중앙동2구역의 공식 상가를 줄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타트업 헬런지 군산 로컬타운 조성' 사업을 기획했다.

창업 기반 조성과 창업 활성화, 창업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마련해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64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을 조성하고, 공식 상가를 활용해 건물주와 예비 창업자가 협력하는 상생협력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뿐 아니라 시니어 등 모든 연령층이 취업과 창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취업·창업 교육관과 명장기술전수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기존 상인의 기술과 청년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로컬타운 거리 공간 개선, 문화광장 조성, 거리축제 개최 등으로 원도심에 유동인구를 늘리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김영랑 도시재생과장은 "민선 9기 시청 방향에 맞는 첫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1990~2000년대 중앙동의 북고 감성을 활용한 군산만의 지역특화 전략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옹동우체국 '출장소'로 새 출발

집단 갈등 조정 우수 적극 행정 모범 사례 평가

정읍시 옹동우체국이 폐국 위기를 넘기고 6일 출장소로 새롭게 문을 열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시는 이날 이학수 시장과 구분준 전북지방우정청장을 비롯해 김영수 옹동면 이장협의회장 및 마을 이장단, 도·시의원,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우체국 옹동출장소' 개소식을 열었다.

폐국 위기를 딛고 이뤄낸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18일 옹동우체국 폐국 결정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우체국이 문을 닫으면 고령의 농촌 주민이 금융과 우편 업무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옹동면 이장협의회는 주민 71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민권의 위원회에 제출하며 크게 반발했다.

갈등을 풀고자 정읍시 시민소통실은 발 빠르게 현장 행정에 나섰다.

관계자가 전북지방우정청을 직접 방문해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대안으로 대체 공유재산(건물, 토지)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달 23일 정읍시, 국민권익위원회, 우정사업본부는 집단 고충민원 조정을 거쳐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기존 우체국 명맥을 이어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운영 방식을 출장소 형태로 바꾼 존속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시범사업' 선정

취·창업 중심 자립도전형 도입

군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참여자의 근로 능력과 자활 의지, 자립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근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자활사업 운영 방식을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등 기존 사업단을 △취업과

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립도전형(취업도전형·창업도전형)과 △자활의지 향상 및 근로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자활준비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참여자의 자립역량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개인별 자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 배치해 보다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맞춤형 자활지원체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운영과 성과관리를 총괄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참여기관별 사업계획 자문(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군산소방서>

군산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0일~내달 17일까지

군산소방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9일간 선유도해수욕장에 소방공무원과 민간대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선유도해수욕장에 소방공무원과 민간대원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를 수행하게 된다.

군산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현장

응급처치 실적은 △2023년 63건 △2024년 69건 △2025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운영에 앞서 수변안전요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구명환 활용법 등 수난사고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구조·구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순찰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지방세 징수 '최우수' 평가

건전재정 강화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하반기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4회 연속 지방세 징수 분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인센티브 2000만 원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율, 지방세수 신장률,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자동차공매실적 등 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총 63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과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병행하며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처량에 대한 상시 변호관 영치 활동을 통해 2억 6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질 체납 처량에 대해서는 견인과 공매처분을 실시해 1억 9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구금지 요청, 재산 압류, 채권 확보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하며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 마련에 힘썼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여름철 침수 대비 '총력'

군산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일 하수과, 안전총괄과, 읍·면·동이 함께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빗물받이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여름철 침수 대비를 위한 최종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시설의 기능을 최종 확인하고 침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각 부서와 읍·면·동은 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해 주요 도로와 상습 침수지역,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빗물받이 내 퇴적도 및 쓰레기 제거 △낙엽 등 우수 유입 방해물 정비 △약척 저감을 이유

로 설치된 고무판, 합판, 비닐 등 불법 덮개 제거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빗물받이 확인 및 정비 대상 조사 등이다.

군산시는 올해 빗물받이 2만 1천여 개소와 우수관로 준설을 완료하고, 침수 취약지역 관로 확충과 빗물받이 신설·보수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장마철 대비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시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익산시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익산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과 지역사회 적응 상황을 살펴보고 변화된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신규 자립지원 대상자를 심의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유형을 결정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지

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욕구와 생활환경을 반영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자립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지원과 일자리 연계,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시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계획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농촌 매력 높인다” 2(題)

정착 지원정책·생활 여건 홍보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이성기 센터장)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군 정착 지원정책과 생활 여건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전은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내가 그린대로 시즌3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북자치도의 귀농·귀촌·귀어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군을 비롯한 도내 13개 시군이 참여해 지역별 맞춤 상담과 특화 지원정책, 성공 사례 등을 공유했다.

행사 기간 내에 전북 귀농·귀촌 설명회와 함께 농촌 일자리 특강, 스마트팜 특강 등 부대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했다.

‘행복한 마을극장’ 성황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일 하서면 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행복한 마을극장’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부안군의 지원을 받아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마을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찬 나눔, 이·미용, 세탁서비스 등을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주민 체감형 복지·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평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 영화 관람이 여의치 않은 농촌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하서면 주민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큰 호응을 얻었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화 상영에는 팝콘과 뽕튀기, 시원한 미숫가루 등 다채로운 간식이 제공돼 관람의 즐거움을 더했다.

또 영화 상영 직후에는 참석하신 주민 전원에게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마을 공동체가 화합하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에 힘입어 오는 8월 6일 하서면에서 두 번째 행복한 마을극장 상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교촌마을 집수리사업’ 착수

마을 경관·생활환경 개선

고창군이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핵심사업인 집수리 지원사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교촌마을 집수리 경관계획’에는 건축물 외관, 담장, 대문, 골목길 및 외부공간 등 마을 전반에 대한 경관 개선 방향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개별 주택 정비는 물론, 마을 전체의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고창군은 이달부터 노후주택(15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서류검토와 현장실태조사, 전담건축사의 전문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집수리 전담건축사 운영을 통해 설계 자문과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신경쓴다.

전현재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팀장은 “마을 전체의 경관과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교촌마을만의 특색 있는 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735회 지평선아카데미 인구학자 이상림 초청 강연

김제시는 오는 9일 제735회 지평선아카데미에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원 이상림 박사를 초청해 “인구변동과 AI 그리고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상림 박사는 오랫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활동하며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를 연구해 온 인구학자다. 특히 인구 감소를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사회 전반의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분석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연구자다.

이번 강연에서 이상림 박사는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흐름과 미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인공지능(AI) 발전이 이러한 변화와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면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제7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운영하는 이번 강연은 시민들에게 지방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시각과 전략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 농업전략 마련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김제시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역 농업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현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야별 자문위원, 지역 농업인단체 대표,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업전략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 내용이 공유됐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김제시 농업의 발전 방향과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적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와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농업구조 변화 동향을 정밀 분석하고, 시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현황을 진단해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를 통해 농업구조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질적인 이행과제와 성과관리 체계까지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미래 농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제시의 실정에 맞는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김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장마철 군민 안전 최우선”

심덕섭 군수,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비상근무 단계별 대응절차를 비롯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재해취약지역 관리대책, 읍면과 유관기관 간 상황전파 체계 등 재난 대응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고창군은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변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특히 고창읍성 성곽길 등에 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출입 통제와 주민 대피 안내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해 기상특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읍면동과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장마철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점검과 상황관리에 틈틈이 있어야 한다”며 “재난안전 부서를 중심으로 각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읍면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10대 김제시의회 의정활동 ‘첫발’

이정자 의장 김승일 부의장 선출

김제시의회가 6일 시의회 1층 본회의장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10대 김제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하며 향후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반기 의장에는 이정자 의원 이, 부의장에는 김승일 의원이 각각 선출돼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이어진 이후 개원식 행사에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14명의 시의원을 비롯해 정성주 김제시장, 김제시의회 역대 의장 및 의원, 언론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제10대 의회의 첫출발을 축하했다.

개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의원선서, 윤리강령 낭독, 이정자 의장의 개원사와 정성주 김제시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의원 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정자 신임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김제, 다음 세대가 기꺼이 머물고 싶어하는 김제를 만드는 것이 제10대 의회의 명확한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장 중심 의회, 전문성과 정책 역

량을 갖춘 실력 있는 의회, 공감과 화합의 의회,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한 “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되, 단순한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시민 행복과 김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당당하게 대안을 주도하는 강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7월 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제10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군, 고액채납자 가택수색 실시

전북 고창군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 채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최근 수 차례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회피하며 지방세 납부를 거부해 온 고액채납자들의 주소지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고창군 채납집수기동반은 올해 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 채납자 중 거소지가 파악된 대상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장에서 104만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명

품가방, 귀금속, 양주 등을 압류했다. 군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를 지속하는 고질 채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압류, 출국금지 등 가능한 행정 수단을 활용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채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휴가철 맞이 숙박업소 특별점검

김제시는 여름 휴가철 및 앞으로 다가올 축제, 대회 등을 대비해 관광객과 시민이 안심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한 달간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숙박 요금의 과도한 인상 행위와 불법 증축 운영 등 불법 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숙박요금 게시 및 표시 가격 준수 여부 △성수기 과도한 요금 인상 여부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바가지요금과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숙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안심문자 시스템 구축 기관 사칭·도용 피해예방

전북 고창군이 군민과의 신뢰 있는 소통 강화를 위해 ‘안심마크’가 적용된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 기반 문자 발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정보 전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문자 발송은 발신 번호만 표시돼 주민들이 사기 문자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대표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RCS 문자 발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문자를 받는 군민이 ‘고창군’ 기관명·부서명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검증한 ‘안심마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위·변조나 사칭이 불가능하다.

최순필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군민이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 사칭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농업용로봇 ‘무인예초기’ 보급

스마트농업 혁신 현장 시연회 ‘눈길’

민선 9기 고창군이 스마트농업 혁신을 이끌 ‘농업용로봇(무인예초기)’ 보급에 나섰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일원에서 ‘임대농업 기계 신기술 시범 시연회-무인예초기’를 열었다.

현장에는 감연구회 회원 및 평소 예초작업이 많은 과수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무인예초기의 핵심 기술 설명과 시범 요인 공유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경작지 환경에서 무인예초기를 운전하는 시연이 이어졌다.

특히 경사지가 많아 작업이 까다로운 과수원 환경에서 무인예초기가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잡초를 제거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현장 농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무인예초기의 실제 농가 임대보급 및 편리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시연회를 거쳐 무인예초기를 서부 및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각각 1대씩 비치하고, 예초작업이 필요한 농가에 적극적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초작업은 과원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지만 노동 강도가 높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큰 작업이다”며 “앞으로도 무인예초기와 같은 스마트 농기계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 운봉, 체류관광·재생 거점 도약

'지역특화재생' 국비 150억 확보 미식·웰니스·역사 콘텐츠 구축

남원시가 2026년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운봉읍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은 물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체편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미식과 휴양, 별빛이 머무르는 힐링 거점, 운봉!"이라는 비전으로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57-3번지 일원(면적 190,000㎡)의 중심지가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국비 150억 원 포함 총사업비 약 279억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역사·문화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봉 흑돼지 및 고랭지 농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지리산 미식제작소' 조성 △허브를 활용한

뷰티스파와 게스트하우스의 복합시설인 '웰니스치유센터' 조성 △상권활성화 가로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골목길 정비 △역사·문화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운봉의 잠재력과 주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활력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활성화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공약 실천 속도 낸다"

민선9기 첫 확대간부회의 115개 공약 속도감있게 추진

유희태 완주군수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새 국정 비전 실현과 핵심 과제 점검에 나섰다.

6일 유 군수는 군청 중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출범식 마무리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하며 행정역량 결속을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유 군수는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행복경제도시 완주' 대도약 실현을 위해 4대 목표와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5대 분야



<사진=완주군>

115개 실천 과제에 대해서도 분기별·단계별 이행 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수립해 임기 초반부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 군수는 최근 실시한 정기인사에 따른 인사이동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 소홀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인계와 부서별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군수는 이어 "민선 9기 초반은 완주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군의 모든 행정 역량을 총결집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인사청탁·줄서기 근절해야"

민선9기 첫 간부회의 주재 국가예산 확보 총력 당부

양충모 남원시장은 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민선9기 첫 간부회의를 열고, 시청 운영 방향과 공직문화 쇄신에 대한 당부말씀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 실·국·소장, 관·과·소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65명이 참석했다.

양 시장은 먼저 공직사회 내 인사 청탁과 줄서기 문화 근절을 주문했다. 그는 "민선9기는 청렴과 공정을 시청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인사 청탁, 이권 개입, 사업 청탁 등 공정 행정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는 시장의 눈치를 보기보다 시민만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 있게 일해야 한다"며 "능력과 성과,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쇄신에 대



<사진=남원시>

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양 시장은 일방적인 지시와 무조건적인 복종, 직위를 앞세운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면 현안으로는 국가예산 확보와 재정건전성 회복을 꼽았다. 양 시장은 "7월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한

시기"라며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명분과 실효성, 재원 확보 방안,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과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긴축재정 속에서도 미래 투자를 병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생수 나눔·살수차 등 폭염 대응 총력

주요 도로 열기 식히기 나서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순창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괄상황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우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회관 172곳의 방바닥 점검

을 완료해 노인인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중앙로를 비롯해 버스터미널, 교육청 사거리 등 주요 도로 12.3km 구간에 살수차를 투입해 도심 열기를 낮추고 있다.

주민들의 열염질환 예방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대했다. 관내 주요 교차로에는 모두 32개의 그늘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터미널과 교육지원청, 주공아파트, 순창고등학교, 경찰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5개 지점에는 얼음과 생수를 비치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부서에서는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돌봄모의와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부 확인과 방문 건강관리, 전화 상담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 현장과 농작업 현장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제'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폭염 시 행동요령 안내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들께서도 폭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제10대 완주군의회 개원...의정활동 본격화

성중기 의장 "군 정체성 지킬 것" 민생경제정책중심 의정 제시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는 6일 본회의장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역대 의원,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완주군의회 개원식을 갖고,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성중기 의장은 개원사에서 "오늘 제10대 완주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크나큰 기대 속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제10대 완주군의회는 출범은 단순한 임기시작을 넘어 '완주군'이라는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내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기쁜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중기 의장

또한 "집행부의 군정 운영에 협력하겠다는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군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정과 예산 낭비에는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앞으로의 의정 방향으로 △민생과 미래를 주도하는 '경제 의회' △주민의 삶에 밀착하는 '안전한 복지 의회' △완주군의 자존심을 지키는 '군민 우선의 자치 의회' △군민의 뜻을 받드는 '생산적 균형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정책 의회'를 제시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장류축제, 수도권 관광객 유치 시도

킨텍스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디지털관광주민증 등 홍보

순창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예비글로벌축제인 순창장류축제를 비롯한 지역 대표 명소와 관광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박람회는 KITS 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제방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산업원이 주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관광 행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관련 기관·업체 등 약 300개 기관이 함께했다.

순창군은 예비글로벌축제인 순창장류축제를 비롯해 강천산 군립공원, 발효테마파크, 양지전, 음악분수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알리고, 관광 홍보영상과 안내책자를 통해 순창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과 순창군 SNS·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진행

하고, 참여자들에게 순창의 대표 특산품인 미니고추장을 증정했다.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과 SNS·유튜브 구독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며 순창 여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며 순창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1회 순창장류축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순창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가운데 전통 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 미식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순창의 맛과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서 군민제 홍보

답례품·관광자원 홍보관 운영 완주사랑군민제 혜택도 소개

완주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에 참가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완주사랑군민제를 홍보하며 수도권 방문객들에게 완주의 매력을 알렸다.

이번 페스티벌은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의 우수한 답례품, 관광자원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행사 기간 홍보관을 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과 특색 있는 답례품을 소개하고, 완주의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선보였다. 아울러 완주사랑군민제와 완주사랑군민증 혜택도 함께 안내하며 생활인구 확대와 관계인구 유입을 적극 알렸다.

행사와 연계한 '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도 운영했다. 완주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배스킨라빈스 1만 원 모바일 쿠폰 증정 이벤트를 마련해 기부 참여를 유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완주군의 우수한 답례품과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더 많은 분들이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지역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몽골 달란자드가드시와 협력 확대

우호협력 실무협의 개최 의료·농업·관광 등 상생 강화

남원시(시장 양충모)가 몽골 달란자드가드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남원시는 6일 척트 테너더리지 달란자드가드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남원시-달란자드가드시 우호협력 체결 실무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와 달란자드가드시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몽골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해 총 209명의 인력을 도입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또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도 몽

골 4개 교육기관 협약 체결, 전북대 글로벌대학 입학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실무 협의에서는 기존의 교류 사업을 고도화하는 방안과 함께,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연계 의료인력 양성 및 한방·치유 웰니스 투어 연계 △남원 춘향제 및 달란자드가드시 낙타 축제 등 전통축제 상호 방문 교류 △스마트 팜 기술 전수 및 K-푸드 연계 농특산물 유통 협력 △기후 맞춤형 수종 식재 기술 교류 △소년 스포츠 교류, 선 수단 전지훈련 유치, 몽골 말 자원 관리·재활 기술 상호 교류 추진 등 신규 교류 협력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전북청년허브 공모 선정 청년1인가구 식생활 개선 지원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가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주관하는 '2026 전북 청년 1인가구 식생활 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증가하는 청년 1인가구의 불균형한 식습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청년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는 '완주 청년 로컬푸드 식생활 자립 프로젝트-혼밥에서 함께밥으로'를 주제로 군의 대표 자원인 로컬푸드와 센터가 운영하는 삼례 청년거점공간(완주지대)의 공유주방을 활용해 단순한 요리교실이 아닌 식생활 자립을 위한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식생활 진단을 시작으로 기초 조리교육, 완주군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식과 절약형 레시피 실습, 식단 준비(밀프렙)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된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은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다' 소셜다이닝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리 실습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2026년 하반기 행정인턴 참여자 모집

순창군이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공직사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행정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행정인턴 모집 인원은 총 18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합·쌍지 등 원거리 거주자를 배려한 우선 선발 3명과 일반선발 15명으로 나눠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 3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06년생) 청년이다. 보다 많은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행정인턴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인턴들은 오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순창군청과 사업소 등 각 부서에 배치돼 다양한 행정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근무는 주 5일, 하루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 8만 2,560원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4대 사회보험도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순창군청 1층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hyunjae9745@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선택과 집중' 청사초롱 대대적 재정비

남원시가 관내에 설치된 청사초롱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다. 시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온 청사초롱의 공간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후화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구간별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023년부터 요천로, 소리길, 남문로, 도동동 등 총 연장 18.8km, 약 32,740개 청사초롱을 설치해 야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낮 시간대 미관 저해,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 제기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주민 의견과 관광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간별 맞춤형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일부 구간 정비를 완료했으며 7월 중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민 불편이 지속됐던 주거지 및 외곽 연결 도로(춘향교~도동동, 더라우 일원) 구역은 청사초롱을 전면 철거한다. 이를 통해 야간 빛공해를 완벽히 해소한다.

대표 관광지인 관광루원, 춘향테마파크, 요천로 일원은 청사초롱을 상시 존치하고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해 야간경관을 고도화한다.

/남원=김종원 기자

장수 계북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장수군 계북면은 최근 위기 노인가구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주거환경 개선사업 '당신은 혼자 아니야'를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기초생활수급자가 퇴원 후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북면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대상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 악화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주거환경을 정비했다.

이날 활동에는 계북면 찾아가는 복지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해 주택 내·외부 청소와 생활환경 정리, 방역 등을 실시하며 대상자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장수=최진수 기자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 국립임실호국원서 태극기 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회장 염상열)는 지난 2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6·25 참전 유공자 묘역을 정비하고 태극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염상열 협의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활동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호국영령의 곁을 지키던 태극기를 깨끗이 갈무리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6·25 참전 유공자 묘역을 돌며 묘비마다 꽃혀 있던 태극기를 정성껏 거두고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했다.

한편,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는 지역 사회의 통일 여론을 수렴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내 통일 공감대 확산과 주민 소통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진안군이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6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3일 열린 이번 성과대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한의약 대사증후군 관리교실'이다. 이 사업은 비만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요법과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사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20~65세 군민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기초검진 △유산소운동 및 식이교육 △비만관리 한방진료 △스트레스 해소 웃음치료 △한방 건강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 속에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관촌지구 노후 주거지 새 단장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 4년간 총 107억원 투입

임실군 관촌면 관촌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인구 감소와 주택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조성, 노후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해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관촌면 관촌리 일원에 2027년부터 4년간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하여 관촌면행복누리원 신축으로 유휴화되는 기존 관촌면사무소를 주민 공동체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및 태양광 인프라 조성, 안심골목길 및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 공모계획에 반영했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이번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선정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지역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뜻깊은 성과"라며, "관촌지구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는 마을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더 맛집' 신규 업소 선정·발표

맛·메뉴·서비스 등 종합 평가 무주군 미식 로드 구축

무주군이 '2026 무주 더(The) 맛집' 신규 업소 7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무주 더(The) 맛집'은 지역의 맛을 대표할 우수 음식점을 발굴하고 미식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무주오리(한방오리백숙·초벌생오리구이 / 설천면 구천동로 1051) △산들애(능이두부버섯전골 / 설천면 만선1로 94) △소망정음식당(생삼겹살·갈비탕 / 무주읍 주계로 52) △안성가(오쫄볶고기·전마파볶고기 / 안성면 단지봉길 5) △용추폭포가든(불고기·낙지전골 / 안성면 칠원로 434) △원조함대맛집(보쌈정식·토종닭 능이버섯백숙 / 설천면 구천동1로 101) △천지가든(버섯전골·천지정식 / 무주읍 괴목로 1313) 등 7개 업소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 5년간 '무주 더(The) 맛집'의 자격을 유지하며, 전문가들로부터 경영진단과 메뉴 개발, 홍보·마케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무주군은 '무주 더(The) 맛집' 인증 현판을 제공하고 균형 누리집을 비롯한 관광홍보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박은석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은 "미식 관광 육성은 민선 9기 무주가 지향하는 사계절 수익형 관광도시 완성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라며 "더 맛집이 지역의 음식과 식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미식 관광 추세를 선도하고 무주를 다시 찾고 싶은 미식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대표 맛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음

식문화가 알려져 지역 외식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맛집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 더(The) 맛집'은 무주군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미식 관광 기반 조성 사업으로, 올해는 최초 선정업소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업소 7개소를 새롭게 선정했다. 지난 5년간 '무주 더(The) 맛집'으로 선정·지원한 업소는 총 26곳에 이른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 더(The) 맛집'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1차 방문 평가와 2차 암행 평가를 통해 음식의 맛과 메뉴의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이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활용도와 서비스 품질, 위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무주를 대표할 맛집으로 선정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출범 첫 주요업무 보고 실시

장수군은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 군청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고, 균형 주요 현안과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하반기 균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주요업무 보고로, 공약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최훈식 장수군수 주재로 이경우 부군수와 국·소장, 20개 부서 부서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과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분야별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부서별 대응방안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공유해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주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수군은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 군청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한다 <사진=장수군>

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장수형 기본사회 추진체계 구축과 5대 분야 정책 활성화 등 민선9기 공약사업 61건을 비롯해 △장수누리랜드 관광중심거점 조성 △반할주택 등 맞춤형 주택 조성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조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농가 소득기반 확대 지원사업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현안사업이

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과 사업별 쟁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해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민선9기 공약사업과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눈길

무료 경로식당 등 4개 사업장 투입

무주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상반기 총 20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0명이 무료 경로식당, 최북미술관 뮤지엄라운지 등 4개 사업장에서 운영 도우미로 활동 중이다.

김현정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일자리 팀장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실

업·저소득층·청년·고령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 정책"이라며 "이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는 버팀목이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 군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8세~74세 군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접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등) 연속 참여자 및 중복 참여자, 1세대 2인 신청자, 직전 단계 포기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무주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에도 올해 총 17억 8천여 만 원을 투입해 '무주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신중년 취업 지원', '무주군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등 지역 내 경쟁력 강화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청소년 기획 축제 '여름이 왔썸머'

공연·물놀이·체험 프로그램

장수군은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첫 번째 팝업축제 '여름이 왔썸머'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축제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여름의 활기와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담은 '여름이 왔썸머'를 축제 명칭으로 선정했다. '우리의 여름, 우리가 만드는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또래들과 함께 소통하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으로 마련된다. 축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학생

대표의 인사말과 격려사에 이어 장계청소년문화축제청소년기획단의 합창, 청소년 동아리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밴드와 댄스, 히든싱어 무대 등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행사장에서는 먹거리 부스와 체험부스, 물놀이 콘텐츠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또한 경험추첨을 진행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한득수 군수 첫 간부회의 "성과 중심 행정 실현"

25개 실과소 업무 점검

한득수 임실군수가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부서별 업무 추진에 있어 명확한 방향성과 설정, 추진성과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6일 열린 첫 간부회의는 약 90분동안 진행됐으며, 25개 실과소의 주간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보고받은 뒤 행정과 보건·의료, 관광·홍보, 건축민원·노인일자리,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의료원 운영방향 등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한편, 행정분야에서는 읍·면·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임면사항 개선사항을 마련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홍보담당 업무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는 "기부해주신 분들에게 늘 격려와 감사 인사를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반려

산업과의 업무 연계성을 함께 검토하여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민원 중 건축행정과 관련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현실적인 양성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 군수는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운영과 관련해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의사 부족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투자 대비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획기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해야 한다"고 보건·의료원의 혁신적인 변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의회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진안군의회는 6일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진안군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직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장에 김병갑 의원, 부의장에 손동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실시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운영행정위원장에 이미욱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민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제10대 진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선출된 김병갑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뜻을 받들고 의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뒤 오는 7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필봉농악 '춤추는 상쇠-만남' 상설공연

7월 4일~8월 29일 매주 토요일

국가무형유산인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상설공연 개막공연이 지난 4일 임실 필봉문화촌 대동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공연은 시대의 변화를 함께 했

던 임실 사람들, 임실치즈, 지정한 신부의 만남을 주제로 가(歌), 무(舞), 악(樂)을 활용한 창작 연희곡으로 지난 4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내달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필봉문화촌 대동관 및 산대마당에서 펼쳐진다. /임실=한병열 기자



**익산 동산동 김동윤씨
직접 재배한 찰보리 200kg 기부**

익산시 동산동은 6일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 김동윤씨가 직접 수확한 찰보리 2kg 1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찰보리는 김동윤씨가 한 해 동안 재배해 수확한 것으로, 지역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동윤씨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수년째 이웃과 나누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김동윤씨는 "자식처럼 정성껏 키운 찰보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명경 동산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쌀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농산물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다"며 "기탁해 주신 찰보리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공음면 새마을부녀회
경로당에 반찬 나눔**

고창군 공음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복순)가 지난 3일 관내 51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봉사'를 추진했다.

나눔은 청보리밭축제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한 먹거리 부스 수익금 100만원을 기부하면서 더욱 풍성하고 뜻깊게 치러졌다. 부녀회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김치, 제육볶음, 멸치볶음 등 밑반찬 3종을 정성껏 조리해 각 경로당에 직접 전달했다.

김복순 공음면 새마을부녀회장은 "매년 해운봉사지만 올해는 축제 수익금까지 보태어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 보람차며, 앞으로도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애숙 공음면장은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면에서도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은행, 완주군에 보건위생용품 후원

300만원 상당 100박스 기부

JB전북은행이 완주군 저소득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건위생용품 100박스를 전달했다.

지난 3일 군수실에서 JB전북은행은 유희태 완주군수와 조인성 JB전북은행 부행장, 김성두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말에게 보내는 선물' 보건위생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을 제공하기 위해 JB전북은행이 마련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날 JB전북은행이 전달한 물품은 30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100박스로, 생리대(5종), 여성청결티슈, 파우치 등 청소년기 위생 관리에 꼭 필요한 7종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전달 받은 물품은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덕보육원 및 공동생활가정 등 총 9개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청소년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지난 3일 군수실에서 JB전북은행은 '말에게 보내는 선물' 보건위생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완주군>

김제 청하면지사협, 한발 앞선 초복 맛이 삼계탕 나눔

독거노인 등 100세대에 전달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형석)가 6일 정기총회를 개최한 뒤, 초복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7월 특화사업으로 삼계탕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복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100세대에 삼계탕 꾸러미 등 3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폈다.

송형석 민간위원장은 "초복보다 조금 앞서 어려운 이웃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삼계탕, 사골곰탕, 육개장, 물냉면, 소면, 자른미역, 황도 등으로 꾸러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재향군인회, 강원도 고성 안보현장 견학

완주군재향군인회(회장 권승환)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고성 일원에서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회원들의 국가안보의식을 높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고성통일전망대와 6·25전쟁체험관, 금강산전망대를 차례로 방문하며 분단의 현실과

6·25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승환 회장은 "이번 안보현장 견학은 자유와 평화의 결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함양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 다양한 안보교육과 현장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나운3동지사협,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군산시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하절기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층 50세대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과 열무김치, 간편 삼계탕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왕근·임진희 공동위원장은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운3동 저장강박증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90세 어르신 생일음식 지원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어려운 이웃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나운2동 김정민 후원자
장학금 100만원 기탁**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남귀우)는 6일 김정민 후원자가 지역 내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미래드림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정민 후원자는 지난해 연말 관내 아동·청소년 5명에게 반기별로 20만 원씩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기탁 의사를 밝히며 나눔을 이어갔다.

특히 김정민 후원자는 학생들에게 자필 손편지를 전하며 "항상 힘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감동을 더했다.

남귀우 나운2동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해주시는 김정민 후원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장학금이 아동·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 신풍동 복지공동체
고독사 위험가구 주거환경개선**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6일 복지공동체(대장 최임관)가 관내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고독사 위험군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집안 내부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장기간 방치하는 등 열악한 상태로 거주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으며 이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청소업체와 신풍동 복지공동체가 협조해 생활폐기물 처리 및 소독 등 청소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고독사 및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저장강박증세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했으며 향후 대상가구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여름철 식중독

식중독 원인



충분한 가열없이
해산물, 육류
섭취



오랜시간 실온에
방치된 음식물
섭취



오염된 도마등
주방용품 사용



제대로 세척하지않는
채소류 섭취



〈一事一言〉



‘허울뿐인 호남’에 또 속았다, 전북인이여 정신 차려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북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쟁이 열렸을 때, 전북 도민들이 마주한 것은 경악을 넘어선 참담함이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무려 8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가 예고됐지만, ‘호남권 투자’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전북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전남과 광주에 반도체 투자가 집중되고 충청권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사이, 전북은 양 축에 낀 비참한 ‘샌드위치’이자 철저히 소외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지역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비상사국에, 전북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정치권의 모습이다. 지난 선거철, 전북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며 자신만만했던 신임 도지사는 물론이고, 표를 달라고 읍소하던 국회의원들 중 누구 하나 책임 있게 나서서 ‘전북 몫’을 뺏아오려는 처절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권 초기,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중앙정부의 핵심 장관직으로 임명되고, 국회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예산과 입법을 쥐락펴락하는 요직을 속속 차지했을 때 도민들은 비로소 전북에 최고의 기회가 찾아오는 줄 알았다. 전북 유권자들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

에 보답이라도 하듯, 중앙 무대의 실세가 된 그들이 낙후된 고향의 눈물을 닦아주고 해묵은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기대가 깊었던 만큼 배신감은 뼈아프다. 중앙의 화려한 요직을 꿰찬 전북의 정치인들은 그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으로 전북의 실리적 몫을 챙기기는커녕, 오직 권력의 중심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줄 세우기 정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중앙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와 세력 과시에 바쁜 그들에게, 정작 전북의 거대 현안과 도민들의 삶은 뒷전이였음이 이번 ‘반도체 패싱’으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러한 무능과 무책임은 중앙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심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임기 시작부터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와 국회로 상경해 사발이라도 하며 투쟁을 벌이거나, 시민사회와 연계해 치밀한 생존 전략을 짜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라면 그저 ‘에어컨 바람 뽕뽕한’ 도의회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정부 조치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기들끼리 신세한탄 섞인 성명서를 내놓은 것이 전부다. 야당인 국민의힘 도당조차 청년 유출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데, 거대 여당의 안방인 지역 도의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뒷집만 지고

있으니 가슴이 터질 노릇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호남’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 묻혀 전북의 몫을 빼앗기고도 침묵해야 하는가. 정치인들의 화려한 말잔치와 영전 소식에 속아 온 전북도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 “일반 도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나 몰라라 한다”는 전주 시민의 울부짖음은 현 전북 정치권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전주곡이다.

전북도민이여, 이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저들이 중앙에서 누리는 요직과 권세가 전북 유권자들의 피눈물 어린 표 위에서 나온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내가 뽑은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정작 지역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맹목적인 지지의 대가가 ‘철저한 소외’라면, 고향을 배신하고 안주하는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다. 행동하지 않는 무능한 정치꾼들은 반드시 도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맞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졸음운전



식곤증이 몰려오는 시간, 운전대를 잡은 많은 이들이 쏟아지는 잠과 사투를 벌인다. 우리는 흔히 도로 위 가장 큰 위협으로 ‘음주운전’을 꼽으며 경각심을 가지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졸음운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이유는 명확하다. 음주운전은 위험을 인지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최소한의 방어라도 취하지만, 졸음운전은 완전히 의식을 잃

은 무방비 상태로 질주하기 때문이다.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단 3초만 졸아도 차량은 80m 이상을 눈 감고 달리는 셈이다. 충돌은제동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대형 참사로 직결된다.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2배를 넘는다. 극심한 피로와 수면 부족은 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를 만취 상태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잠깐 눈만 깜빡였다”는 변명은 도로 위에서 통하지 않으며, 정신력만으로 잠을 이기려 드는 것은 위험한 오만이다. 졸음 앞에는장사가 없다.

이러한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확

실한 백신은 ‘휴식’이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즉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 단 10분이라도 수면을 취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운전 시에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적지에 조금 빨리 도착하려는 조급함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졸음이 밀려올 때는 운전대를 내려놓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에 안전보다 중요한 일정은 없다. 모두가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유 넘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김제경찰서 신봉지구대
경사 박재원

사설
메가프로젝트 농친 전북, 더 뼈아픈 것은 정치의 무기력이다

국가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로 짜는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이 또다시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소식은 도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 주고 있다. 반도체와 AI,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사업은 향후 수십 년간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다. 이처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전북 정치권의 대응은 더 큰 문제다.

더욱 답답한 것은 사업이 발표된 뒤에야 유감과 아쉬움을 표명하는 모습이다. “노력하겠다”, “정부와 협의하겠다”, “추가 반영을 건의하겠다”는 일문적 발언만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국가사업은 발표 이후가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치밀한 논리와 협상으로 지역의 몫을 확보해야 했다.

전북은 결코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다.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자산이 있고, 재생에너지와 농생명산업,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할 잠재력도 충분하다. 문제는 이러한 강점을 국가 전략과 연결시키는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관계 부처를 움직이며, 여야

를 초월해 지역의 이익을 관찰시켜야 했다. 지난 전북의 정치인들은 무얼했는가?

도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전북을 배제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막아내지 못한 지역 정치권은 무능인가 태만인가? 전북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 정쟁은 사라지고 초당적 협력이 앞서야 했지만 그런 모습은 없었다.

이제 전북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정부 발표 뒤 성명을 내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참여해 전북의 논리를 반영시키는 정치가 필요하다. 지역의 발전은 구호나 호소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치밀한 전략과 끈질긴 협상,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메가프로젝트에서 빠진 것은 전북만이 아니다. 전북 정치의 존재감도 함께 빠졌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북의 몫을 반드시 지켜내는 정치의 실력이다. 전북의 의원들은 모두 서울로 상경하라. 그리고 결과를 가져와라.

오늘의시

7월 / 목 필균

7월 한 해의 허리가 접힌 채
돌아선 반환점에
무리 지어 핀 개망초

폭염 속으로 무성하게
피어난 잎새도 기울면
중년의 머리카락처럼
단풍 들겠지

한 해의 궤도를 순환하는
레일에 깔린 절반의 날들
시간의 음소까지 조각난 눈물
장대비로 내린다

무성한 잎새로도
견딜 수 없는 햇살
굳게 접힌 마음 한 자락
폭우 속으로 슬러간다

계절의 반도 접힌다

시인 약력 : 1954년 출생.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2001 서울 송례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1995년 '문학 21' 신인상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월19)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순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도자기’ 아름다움 ‘종이가’ 품는다



‘도자기를 사랑한 종이’ 기획전 시전
전주페이퍼 전주한지박물관
30여년간 지역 대표 한지문화공간 운영
오는 8월 29일까지 무료 관람
‘종이’, ‘도자기’ 독창적 예술세계 만남

전주페이퍼 ‘도자기를 사랑한 종이’ 기획전시 운영에 따른 새로운 종이예술 가치가 도·시민들에게 선보여질 전망이다.
 기획전시는 오는 8월 29일까지 전주한지박물관 기획전시실을 통해 진행된다.
 기획전시는 종이 한 장으로 도자기 아름다움을 구현해 낸 이미지 작가의 작품세계가 소개된다.
 이번 전주페이퍼 기획전시전은 시민들이 창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종이예술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관람객 체험공간 ‘전시장 벽면 완성’이 운영된다.
 이에 관람객 참여 ‘종이접기’ 시간 통한 관람객들의 단순 작품 감상을 넘어 ‘종이 예술 창조 직접 참여’가 이어진다.
 ‘도자기 아름다움 가치’를 종이로 표현해 낸 이미지 작가

는 지난 1980년대부터 종이접기를 통해 △항아리 △매병 △주병 등 우리 전통 도자기의 형태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해 온 작가다.
 특히 이 작가의 모든 작품들은 종이 한 장을 자르지 않고 반복해서 접은 뒤 양 끝을 이어 입체적인 도자기 형태를 완성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제작돼 종이 가진 조형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련해 전주한지박물관 측은 “이번 기획전시에서는 ‘하나의 예술재료로 종이의 다양한 쓰임새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기록과 표현 매체를 넘어선 종이 한 장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변화와 창작의 즐거움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전주한지박물관(www.hanjimuseum.co.kr) 2층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매주 화요일~금요일)이며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한다.
 한편 국내 대표 제지기업인 전주페이퍼가 운영하는 전주한지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 한지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난 199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다. 전주페이퍼 운영 전주한지박물관은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지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